

읽을거리	최재천 『통섭의 식탁』	
파트너	조민영 님	
발제자	이승준 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 독후감 토크	[2] 20:10 북 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 토크
	[5] 23:00 마무리 발언	[6]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하나. 우리의 다름을 배려하며. 나와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여요. 둘. 자기만의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은 나눌 때 비로소 학습과 성장이 됩니다. 셋. 꾸준히 연결된 상태로. 카카오톡 채널·뉴스레터·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이어져요.	
북토크		

북토크

Intro

지난 모임에서 우리는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을 놓고 한 우물과 여러 우물 사이를 오래 오갔습니다. 이번 달 책은 같은 질문에 한국의 한 생태학자가 내놓은 답안지입니다. 다만 답의 형식이 특이합니다. 논증 대신 메뉴판입니다. 시즌을 열던 날, 기대되는 책을 꿈꿀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른 책이기도 하지요. 8월 마지막 모임에서도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남아 있을지, 오늘 우리는 어떤 감상을 안고 돌아갈까요?

식탁을 본격적으로 차리기 전에, 시 한 편을 올려 두고 싶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담을 고치며」. 봄이 오면 두 이웃이 겨우내 무너진 돌담을 사이에 두고 만나, 각자 자기 쪽에 떨어진 돌을 주워 담을 다시 쌓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담이 대체 왜 필요냐고 속으로 묻고, 다른 한 사람은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아버지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담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두 사람은 해마다 같이 담을 고칩니다. 왜 하필 이 시로 시작하는지는, 오늘 의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저자 최재천 교수는 15년 넘게 신문에 기고한 서평 가운데 56편을 골라, 애플타이저부터 디지털, 퓨전 요리까지 코스로 차렸습니다. 독후감에서도 이 형식이 먼저 화제였어요. 오마카세 같아서 의외의 요리가 인생 메뉴가 되더라는 분도 있었고요. 시식 후기에 가깝다며 지루한 대목에서는 '아 오이 같은 챕터네' 하셨다는 분도, 한 권 읽었을 뿐인데 무거운 책장이라는 숙제를 얻었다는 분도요. 다 읽고 나니 오히려 배가 고프다는 고백도 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슬며시 기대했던 저자의 마음도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지난 모임의 이야기가 자꾸 따라왔습니다. 한 우물과 여러 우물 사이에서 우리가 오래 서성였는데, 저자는 한 강연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물을 넓게 파라. 깊게만 파 내려가면 이웃 우물과 만나지 못한 채 고립된다고요. 이 책의 56편은 저자가 넓게 파 둔 우물의 목록처럼 보였어요. 제 편의대로 읽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전공을 고르는 중인 분도 있고, 낯선 직무와 씨름하는 분도,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일이 업인 분도 있죠. 그래도 오늘은 이 셰프의 조리법에서 훔칠 게 하나쯤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재료를 고르는 법, 다른 하나는 재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북토크

모임을 여는 시

담을 고치며 - 로버트 프로스트 (1914)

담을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언 땅을 부풀려 담 밑을 밀어 올리고
위에 얹힌 돌들을 햇볕 아래로 쏟아 내어,
두 사람이 나란히 지나갈 만한 틈을 낸다.

사냥꾼들이 낸 틈은 또 다른 이야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헤집어 놓은 자리를
나는 뒤따라 다니며 고쳐 놓곤 했지만,
그들은 그저 숨은 토끼를 몰아내
짓어 대는 개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말하는 틈은 그런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걸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데,
봄에 담 고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거기 나 있는 틈들.

나는 언덕 너머 이웃에게 기별을 넣는다.
그렇게 어느 날 만나 경계를 따라 걸으며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담을 세운다.
걷는 동안에도 담은 우리 사이에 있다.
제 쪽에 떨어진 돌은 제가 줍는다.
어떤 돌은 빵 덩이 같고 어떤 돌은 거의 공처럼 둥글어서,
우리는 주문을 걸어야 겨우 균형을 잡는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까지만 거기 그대로 있어 다오!"
돌을 만지느라 손가락이 거칠어진다.

오, 이것도 그저 야외 놀이의 한 가지,
한 편에 한 사람씩. 그 이상은 아니다.
사실 담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담이 필요 없다.
그의 땅은 온통 소나무고 내 땅은 사과밭이니까.
내 사과나무들이 건너가서
그의 소나무 밑 술방울을 먹어 치울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말해 본다.

북토크

그는 이 말만 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

봄이 내 안에서 장난기를 부린다. 그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를 심어 줄 수는 없을까.
"왜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 그건
소를 키우는 데서나 통하는 말 아닌가요? 여기엔 소가 없잖아요.
나라면 담을 쌓기 전에 묻고 싶을 겁니다.
이 담으로 무엇을 가두고 무엇을 막으려는 건지,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
담을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담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요정의 짓이지요"라고 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꼭 요정의 짓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말은
그가 스스로 하면 좋겠다. 저기 그가 보인다.
양손에 돌을 하나씩 단단히 움켜쥐고 오는 모습이
무장한 석기시대 사람 같다.
내 눈에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숲과 나무 그늘의 어둠만은 아닌 어둠.
그는 아버지의 말씀 뒤로는 거슬러 가 보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 마침 떠오른 게 흐릿한 듯 다시 말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지요."

발제자의 생각

이 시에는 상반된 문장이 두 번씩 나옵니다. 담을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화자의 말과,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이웃의 말. 시는 끝까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담을 못마땅해하는 쪽은 화자인데, 정작 봄마다 먼저 기별을 넣어 담을 고치자고
부르는 사람도 화자라는 점이에요. 두 사람이 일 년에 만나는 날이 하필 담을 고치는 날이라는
것. 담이 없었다면 이 둘은 만날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경계가 곧 접점인 셈이지요. 우리도
한 달 만에 이 책을 담으로 삼아 담장을 고쳐볼까요?

북토크

Book Talk 1

"쥐뿔만큼만 알고 덤빈 것이다. 하지만 일이란 대개 그렇게 시작한다." (머리말, p.11)

편식을 그만두는 법

저자가 말하는 기획 독서는 간단히 말해 부족한 부분으로 책을 고르는 독서입니다. 취미 독서가 기분과 취향으로 고른다면, 기획 독서는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일부러 골라 씁니다. 그 자신도 처음부터 넓었던 게 아닙니다. 신문사들의 서평 청탁 때문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책을 평하라는 것인지 황당한 책들을 억지로 읽어야 했고, 그 덕에 "독서 편식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적습니다 (머리말, p.5).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떠밀려서 넓어졌다는 이 고백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정직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읽지 않았을 책이었다는 분. 좀처럼 독서 목록에 오르지 않았을 책이라는 분. 3년째 중간에 멈춰 있던 책을 이번에는 끝냈다는 분. 저마다의 말로, 이 책 앞에서 자신의 편식을 들켰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 책의 논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텍스트를 요약해 주는 시대에, 굳이 낯선 분야의 책을 붙들고 느리게 씁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첫 모임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한참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질문이지요. 그분은 책에서 답을 찾으셨지만, 저는 이 질문을 답 없이 식탁에 올려두고 싶습니다. 2012년의 저자는 요약이 공짜가 된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 여러분이 최근에 '떠밀려서' 넓어진 경험이 있나요? 스스로 계획한 넓힘과 떠밀린 넓힘 중, 실제로 남은 쪽은 어느 쪽이었나요?
- 요약이 공짜인 시대에도 기획 독서는 유효할까요?
- 씁름 없이 얻은 앎과 씁름해서 얻은 앎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발제자의 생각

낯선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던 때를 떠올려 볼까요. 새 학교여도 좋고, 처음 맡아 본 일이어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한 건 그 세계의 깊은 지식보다는, 다른 데서 쥐뿔만큼씩 주워둔 것들이었을 거예요. 저자는 강연에서 대학이야말로 전공의 담장을 넘어 볼 유일한 시기라고, 그 시기가 지났다면 기획 독서가 남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일도, 남의 세계에 자꾸 발을 들이는 일이겠지요. 그 낯섬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서로의 답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Book Talk 2 - "알면 사랑한다."

리서치는 사랑에 이르는 기술일까?

저자가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닌다는 문장입니다. 책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더니, 독후감에서도 다섯 분이 이 문장을 받아 적으셨습니다. 각자 전혀 다른 자리에서요. 포악하거나 징그럽다는 건 생물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일 뿐이라는 대목에서, 잘 모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프레임 씌우고 미워했던 자신을 돌아봤다는 분이 있었고, 대충 알고 좋아하되 다 알고 싫어하는 자신의 좌우명과 포개어 읽은 분도 있었고요. 전갈을 보고 폭언을 퍼붓던 학생이 새끼를 업은 전갈을 보고 마음을 바꾼 일화를 찾아 읽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 문장에 각주를 다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말 언제나 사랑으로 이어지는가. 어떤 앓은 불편함을 남기고, 차라리 몰랐던 편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앓의 방향 문제도 있습니다. 해를 입은 쪽이 해를 끼친 쪽을 이해하면 용서에 이르는가, 그 용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폭력은 아닌가. "알면 사랑한다"는 표어로 쓰기엔 아름답지만, 문장 하나로 닫기엔 앓과 사랑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니다.

- '알면 사랑한다'가 뒤집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수록 좋아진 상대와, 알수록 어려워진 상대.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알아내는 일을 합니다. 앓은 사용자를 사랑하는 데 쓰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쓰이고 있을까요?

발제자의 생각

어느 분이 자연의 첫 지혜로 상호허겁, 서로를 적당히 두려워하며 예의를 갖추는 상태를 꼽은 대목을 서비스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용자를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그 앓으로 사용자의 약점을 파고들 수도 있고(다크 패턴이 그 길입니다), 경계와 예의를 지키는 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 사랑한다는 명제는 리서처에게 저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앓을 어느 쪽에 쓸지는 매번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되었던 최근의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었나요?

Closing

"오히려 보기 드물게도 '시인의 마음을 지닌 과학자'가 되었다." (『과학자의 서재』 인용)

저자는 초등학생 때 시인을 꿈꿨지만 엉뚱하게 이과로 배정되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머리말, p.11). 그 아픔이 훗날 과학자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인문학을 기웃거리는 자가 되었다고 적습니다.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독후감에도 데리고 온 것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리테일 영업부터 앱 기획까지 이 일 저 일 다 해 본 덕에 데이터 뒤의 고객 마음을 읽는 눈이 생겼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 다음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크게 증폭되는 때가 온다고 적은 분도요. 이 직을 준비하다 프로파일링 학원을 몰았더니 초등학생처럼 꿈을 꾸는 말을 들었지만, 그 꿈 꾸는 힘이 오히려 반갑다는 분도 있었어요. 고통 5.5 대 힘빠기 4.5. 배움의 강도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치열함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이 비율은, 고통스럽게 읽어야 지식이 된다는 저자의 독서론에 붙인 애정 어린 수정안처럼 들렸습니다.

저에게도 데리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정식 개관을 앞둔 국립생태원에서 저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통섭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저자가 내놓은 답이, 오늘 처음에 올려 둔 그 시였습니다. 담을 허물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애쓰면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낮추자고요. 비슷한 시절 디자인 특강에서는 저자의 '넙쿨식물' 비유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뿌리는 한쪽에 두고 담을 넘는 식물이요. 그 담과 넙쿨을 십여 년 지니고 다니다가, 이 식탁에서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깊어지거나 높아지는 쪽으로 씁니다. 오늘 이 식탁 위의 이야기들은 성장을 조금 다르게 그립니다. 버리지 않는 것. 어릴 적 기질도, 지나온 직무도, 엉뚱한 꿈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그것들이 한 상에 차려집니다.

-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데리고 온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언제쯤, 어떤 식탁에 오를 것 같나요?

저는 오늘 밤 집에 가면, 이 책의 56권 목록에서 가장 안 읽을 것 같은 책부터 한 권 골라 보려고요. 한 달 동안 이 두꺼운 만찬을 함께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또 만나요. 잔잔하지만 단단하게.

북토크

문장록

- "알면 사랑한다." - 독후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장
- "코끼리는 피할 수 있어도 파리는 피할 수 없다." - 한 분이 일의 디테일에 관한 문장으로 다시 읽어 주신 속담
- "침팬지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 프란스 드 발
- 로버트 프로스트, 「담을 고치며」 - 2013년 인터뷰에서 저자가 '통섭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으로 꼽은 시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지식의 경계에서 튀는 불꽃이 들쭉에 옮겨붙으며 피어나는 산불과도 같다." (p.67)
- "삶은 이렇게 늘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도는가 보다. 진화가 그렇듯이." (p.39) 한 권의 서평이 다음 책으로, 그 책이 또 다음 책으로 이어지는 이 목록 자체가 그렇게 도는 삶처럼 느껴졌어요.

마무리 토크

1. 이 식탁에서 여러분만의 '오늘의 특선'은 어느 접시였나요? 왜 하필 그 요리였는지도 함께 들려주세요.
2. 다음 한 달, 편식을 깨기 위해 붙들어 볼 낯선 책이나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책의 56권 중에서 골라도 좋습니다.
3. 나의 짧은 요즘 무엇을 사랑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 우리 다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오늘의 감상을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싶다면 @redbusbagman 을 함께 태그해 주세요!